

No.20150603-001

제목: 안녕, 너바나

저자: 쿠보 미스미

페이지수: 412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05월 28일



<내용소개>

**소년범죄의 가해자, 피해자유족, 가해자를 숭배하는 소녀, 그 운명의 원 밖에 선 여성작가.
운명을 거역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과를 그린 소설**

일본에서는 만 14세의 청소년은 살인을 저질러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며 국가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풀려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자의 얼굴도, 이름도 공표되지 않는다. 교육을 받고 나면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고,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인터넷이 잘 되어있는 시대에는 허위던지, 진실이던지 범죄자의 이름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에게 공개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범죄자를 숭배하는 이상한 현상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실제로 일본에서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중학생이 있었다. 14세 소년이 일으킨 엽기적인 사건.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소설은 각각의 등장인물의 시점으로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7세의 소녀를 14세의 소년이 참혹하게 죽인 사건으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사건에 의해 억지로 끌려들어온 운명을 거역하기 힘든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일본의 소년법 상 이름이 공표되지 않은 소년A는 29살이 되었다. 사야는 그 아름다운 얼굴을 한 소년 A를 동경해 숭배하는 소녀이다. 살해된 소녀의 엄마, 그리고 그들의 운명의 바퀴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여성작가가 이 세 명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이에게는 애정을 쏟아야 한다, 라던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라는 도덕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그 감정으로 인한 혼란을 신기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사람이 크게 '인간의 속을 보고 싶은 사람'과 '관광을 하는 듯한 나날을 즐기며 사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작품에서의 사람들은 전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인간의 속을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를 향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 가를 마지막까지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독자들이 작품을 읽어 내려간다면 주인공이 아마 책을 쓴 작가 본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이다. 인간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외면하고 싶어지는 감정과 계속 마주해온 작가의 진면모가 드러나는 작품으로 추천한다.

<목차소개>

- I. 언젠가 왕자님이
- II. 스위트 리틀 세븐틴
- III. 악마를 불쌍히 여기는 노래
- IV. 안개와 불꽃
- V. 보이 미트 걸
- VI. 어바웃 어 걸
- VII. 자석의 반대편
- VIII. 다녀왔어
- IX. 달콤한 운명
- X. 최종약장

<저자소개>

쿠보 미스미

1965년 도쿄출생. 단기대학 중퇴후 광고제작회사, 프리 편집라이터를 거쳐, 2009년 [미쿠마리]로 제 8회 여자에 의한 여자를 위한 R-18문학상 대상을 수상하고 데뷔했다. 2011년 수상작을 수록한 [한심한 나는 하늘을 보았다]로 제 24회 야마모토 슈고로상을 수상, 서점대상 2위에 뽑혔다. 2012년 [길 잃은 고래가 있는 저녁]으로 제 3회 야마다 후타로상을 수상했다.

No.20150603-002

제목: 우리 집 집사가 말하기를

저자: 시이나 타카사토

페이지수: 221

장르: 소설

출간일: 2014년 3월 25일



<내용소개>

젊은 당주와 신입 집사, 잘 맞지 않는 두 사람이 펼치는 상류 계급 미스터리!

일본의 내로라 하는 명문가 카라스마 가의 27대째 당주가 된 카에이는 이제 겨우 18세이다. 어느날 갑자기 은퇴성명을 내고 여행을 떠나버린 아버지 신이치로의 자유분방한 행동 때문에 곤란해하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고 동경해왔던 집사 오오토리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오른 상태로 유럽 유학 중에 귀국한다. 하지만, 귀국한 날 아침 카에이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오오토리의 뒤를 이어 집사가 된 22세의 젊은 집사 키사라기였고, 그가 카에이의 눈에 찰 리 없었다.

이렇게 첫 대면에서부터 안 좋은 인상으로 만나 티격태격하는 주종관계, 이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소설 표지 그림만 보아도 둘의 관계가 어떠한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종계약으로 맺어진 두 사람이, 함께 지내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나가게 되고, 거리감 또한 조금씩 사라져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는 상류계층에서 살아가는 주인공과 집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 사건들을 풀어가고 있다. 살인사건 같은 것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일상의 수수께끼 같은 단순한 미스터리도 아니다. 주로 절도, 상해, 유괴와 같은 분명 '범죄'의 축에 들어가는 사건이다. 다만, 상류계급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없으며 모든 일이 내부적으로 처리되고 정리되기 때문에 보통 미스터리 소설에서 볼 수 있는 '범죄'의 느낌은 강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도 주인공 카에이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범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끔씩 등장하지만, 전 집사인 오오토리는 존재감이 매우 크다. 곤란한 때에는 주인공 곁에 나타나 도움을 주는 역할로 나온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상류사회의 에피소드라고는 해도, 작중에 등장하는 사건의 동기 등 면면을 살펴보면 소름 돋게 하는 섬뜩한 장면도 나타난다. 미스터리 그 자체의 내용보다는 오오토리를 따르고 좋아하는 신참 당주와 신참 집사, 이 미숙한 두 사람이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따라갈 수 있는 작품이다. 최근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캐릭터 문예'류의 타이틀로,

<목차소개>

제 1 화 : 별거벗은 왕과 거짓말쟁이 집사

제 2 화 : 흑백의 양과 7색의 덩어리

제 3 화 : 강아지의 왈츠

제 4 화 :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의 집

<저자소개>

시이나 타카사토

이바라키현 출생. 시바우라 공업대학 공학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다. 1999 년 '은의 난간을
녹여서'로 제 11 회 메피스트상을 받고 데뷔하였다. 저서로는 데뷔작으로부터 시작된 '약사 탐정'
시리즈, '돌체 비스타' 시리즈, '펜넬 대륙' 시리즈 등이 있다.

No.20150603-003

제목: 내 아들은 원숭이였다

저자: 사노 요코

페이지수: 124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5년 05월 22일



<내용소개>

작가가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며 그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다. 아이가 자라는 내내 잘못될까봐 불안하고, 스스로 지금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한다.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큰 불안은 '앞날에 대한 걱정' 일 것이다. 앞날을 걱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지만 걱정이 지나칠 경우에는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아이를 좋은 학원에 보내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닦달하고, 쉴 틈 없이 아이를 학원에 보낸다. 그러면 아이는 당장 불필요한 것들을 지나치게 하느라 자칫 그 나이에 정말로 누려야 할 '현재'를 즐기거나 경험하지 못한 채 공부하는 기계로만 발달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부모는 주위에서 쏟아지는 불안을 조장하는 말을 듣고도 버텨내고, 그 불안에서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는 부모 밑에서 편안해 질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 것은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 책에서 '나'는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서 아이의 성장을 지켜본다. 남들이 보기엔 말썽꾸러기이고, 저렇게 자라면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원숭이처럼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는 아들은, 어떤 어른이 될까? 소설의 '나'는 의심할 여지없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충분한 것일까, 적절한 것일까 갈팡질팡 한다. 누가 봐도 좋은 아이가 아니다. 학교에서는 하루에 다섯 번도 넘게 혼난다. 하지만, 다른 것 보다,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마음에 다가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자신과 아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남들이 보기엔 원숭이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성장기를 부모의 시선에서 쓰여진 책이다. 맨 마지막 장에서는 아들인 켄이 이 책을 읽고 난 감상을 적어둔 점이 흥미롭다. 켄이 '나의 그 시절이 이렇게 보였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부모의 시선에서 보는 아이의 성장엔 웃음도, 눈물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 나의 자식이 너무 장난꾸러기에 주위에서 보면 혀를 끌끌 차는 아이로만 보여 걱정이 되는 부모가 있다면, 이 책을 권해주고 싶다. 육아에는 각자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꼭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지 않아도 된다. 엄마와 켄의 대화를 읽으며 웃고, 울다 보면 남들과 같은 교육방법이 꼭 맞지는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목차소개>

1. 화려한 과거 2. 명중 3. 세븐 4. 영리하다. 5. 아, 앓 6. 에이군의 것 7. 타니바타씨 8. 두더지의 불알 9. 옷짱 10. 친구동맹 11. 초콜렛 바 12. 후텐파 13. 13세 14. 링겔 15. 청춘했다 16. 산토리 올드 17. 불행 18. 사랑하는 자 19. 에필로그 대신에 -히로세 겐

<저자소개>

사노 요코

1938 년출생. 어린 시절을 북경에서 보냈다. 1962 년 무사시노 미술대학 디자인과를 졸업, 베를린 조형대학에서 석판화를 배웠다. 제작 그림책으로 [100 만번 산 고양이], [내 모자], [저기 아빠] 등이 있다. 2003 년 자수포장을 받았으며, 2010 년 11 월 사망했다.

No.20150603-004

제목: [있을 곳]이 없는 남자, [시간]이 없는 여자

저자: 미나시타 키리우

페이지수: 276

장르: 인문 / 여성학

출간일: 2015년 06월 01일



<내용소개>

시공간의 뒤틀림을 키워드로, 현대의 남녀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

최근 늘어나는 고독사, 지역이나 가정의 독립, 노인이혼, 독신주의자의 증가 등 현대의 문제를 풀 열쇠는 남녀의 사이에 걸쳐있는 '시공간의 간격'에 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엔 남성은 일, 여성은 가사일을 한다는 것이 남아있다. 남편은 일하고, 부인은 가사와 육아를 하는 성별 분업은, 부부의 생활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오고 있다.

일 때문에 귀가가 늦어져, 가사와 육아, 지역활동에도 참가 할 수 없는 남편은 드문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낮 시간에 교외에 나와있는 중년남성을 기이한 눈으로 보거나 한다. 교외 주택지는 기본적으로 가족을 겨냥했기 때문에, 독신자, 특히 중년독신남성에게 있어서는 있기 불편한 공간이다. 교외의 주택지는 '가정을 지키는 주부(여성)과 아이'를 위한 장소로 여겨지고, 한편으로 도심부는 '샐러리맨(남성)'을 겨냥한 시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은 집 근처에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을까? 통계적으로 보면 기혼여성은 가사, 육아를 포함해 총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길고, 수면시간은 짧다. 아이가 있는 기혼여성은 시간이 없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혼여성 중에서 DINKs(Double Income, No Kids,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않은 맞벌이 부부)족이 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 이외의 인생의 선택지가 불충분한 "세계에서 가장 고독"하다고 여겨지는 남성. 결혼, 생활, 육아 등 제한에 계속 쫓겨 가정에서도 스스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여성. 이 둘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이 책에서는 샐러리맨 가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빈곤문제를 검토한다. 남성, 특히 샐러리맨은 일 이외의 인간관계가 부족하고, 있을 곳이 없고, 고독해지기 마련이다. 한편으로 여성은 압도적으로 시간이 없다. 게다가 서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도 비극적이다. 이 남녀의 사이에 걸쳐있는, 시공간의 깊고 어두운 틈을 밝히고, 서로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 사회에 대한 분석을 논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에 멀게만 느껴지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셸리리맨가정의 [시공간의 뒤틀림]

제 1부 있을 곳이 없는 남자

제 1장: 남녀의 시공간 분리가 불러온 비극

(소비시장의 남성혐오 / 남녀의 공간분리를 검증한다 / '가족의 애정'을 검증한다 등)

제 2장: '나약한 소리를 못한다'는 남성문제

('애정 비즈니스'에 약한 남성 / 산업의 변화와 커뮤니티해체 / 남성자살자가 많은 이유 등)

제 3장 일본남성의 '관계 빈곤'

(일본형 셸리리맨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세계 제일 고독"한 일본남성 등)

제 1부 시간이 없는 여자

제 1장: 기혼여성은 가족의 '시간재산'

(일본의 엄마는 육아의 노력이 많고 책임도 무겁다 / '엄마의 애정'은 사회의 만병통치약인가 등)

제 2장: 일본여성의 '시간빈곤'

('한가한 주부'는 환상이다 / 맞벌이 부부의 남편도 7명중 1명은 가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 등)

제 3장: 출산 타임리밋에 쫓기는 일본여성

('이상한 나라'의 여성활약추진 / 일본여성 초(超)인화 계획 등)

제 3부 시공의 뒤틀림을 넘기 위해서

제 1장: 관용이 없는 일본의 나

('유모차논쟁'의 경위 / '유모차 논쟁'으로의 분석적 시각 등)

제 2장: 종합적인 '생활자'를 생각한다

(워크라이프, 언밸런스한 일본의 나 / '이대로 변하지 않는 일본사회'의 시나리오 /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생각한다 /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개인단위로 등)

에필로그

<저자소개>

미나시타 키리우

1970 년 카나가와현출생. 시인, 사회학자. 와세다대학원 사회과 연구학과 박사후기 과정
단위취득 만기퇴학. 시인으로 [음속평화]에서 나카하라 추야상, [Z 경]으로 반스이상을 수상.

저서로는 [싱글마더의 빈곤], [불량화된 여자들] 등.

No.20150603-005

제목: 구깃구깃 육체백과

저자: 무레 요코

페이지수: 286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5년 05월 15일



<내용소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신체에는 한숨 쉬며 웃을 수 밖에 없다!

56가지의 생각을 바꾸는 안티에이징 에세이

사람은 누구나 신체에 관심이 많다. 나이를 들어가면서 신체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안 좋게 변하지 않기 위해 누구나 노력을 한다. 최근에는 동안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안티 에이징, 즉 노화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이든 중 장년층은 물론 20대의 젊은 층에서도 20대부터 꾸준히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안티 에이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불황 속에서도 안티에이징을 위한 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봤을 때,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나이 듦'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자를 먹으면서 문득 거울을 보면 입 주위에는 주름이 있고, 더운 여름날 지금까지는 흘리지 않았던 땀이 두피에서 넘쳐난다. 작게 노래를 부르면 왜인지 목이 아프기 시작하고, TV를 봐도 늙은 청력으로는 젊은 여자가 높고 빠른 목소리로 뭐라 하는지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점점 신체가 늙어가는 구나"하고 실망하고 너무 걱정해 뇌에는 마이너스요소를 심어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이다. 팔자주름이나 눈 밑 주름, 얼굴의 주름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중년, 노년을 겁주는 미용의 세계에 굴복하지 않고, 아침에는 주름에게 인사를 하며 주름과 맞서 대담하게 웃어보자. 그렇게 노화되어가는 신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생각하면 조금 젊어질 수 있다.

이 책에서 작가는 각각의 신체부위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말해준다. 나이가 들어감을 느끼면서 좌절하지 않고 그 신체부위를 마주보며 좋은 점을 찾는 것이다. 저자의 56가지의 에피소드를 보면, 처음엔 '나이 듦' 이 싫어서 찌푸리던 인상이 자신도 모르게 펴지고, 미소가 지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이 듦'와 마주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지 않을까?

<목차소개>

1. 주름 2. 기관지 3. 새끼발가락 4. 남성의 젖 5. 얼굴그림자 6. 허벅지 7. 아름다운 중년여성의 이 8. 술이 적은 머리 9. 손가락 10. 눈썹 11. 손등 12. 유방 13. 눈밑 애교살 14. 뇌 15. 무릎 16. 음낭 17. 전립선 18. 손톱 19. 귀 20. 귀털 21. 항문 22. 엉덩이 23. 배꼽 24. 목덜미 25. 눈꺼풀 26. 두피 27. 겨드랑이 털 28. 남성얼굴 29. 입 30. 옆구리 31. 목 32. 폐경 33. 충치 34. 노안 35. 눈곱 36. 발뒤꿈치 37. 다릿심 38. 청력 39. 코 밑 40. 틀니 41. 손가락털 42. 치질 43. 혀 44. 위 45. 명치 46. 부종 47. 손 혈관 48. 머리카락 49. 가령취 50. 배 51. 요실금 52. 흰머리 53. 남성의 회춘 54. 발 55. 가려움 56. 하반신

<저자소개>

무레 요코

1954년 도쿄출생. 1977년 일본대학 예술학부 졸업 후, 광고대행사, 편집 프로덕션 등을 거쳐 잡지사에 입사하고 에세이를 쓰기 시작한다. 1984년 [오전영시의 현미빵]으로 데뷔했으며, 그 후 작가로써 독립했다.

No.20150603-006

제목: 스스로 생각하는 용기 -칸트 철학입문

저자: 미코시바 요시유키

페이지수: 224

장르: 철학/자기계발

출간일: 2015년 03월 21일



<내용소개>

칸트의 저서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용기를 가진 어른으로 내딛기 위한 참고서

사람들 중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사람도, 할 수만 있다면 어린아이인 채로 있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하루를 지내고 나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른의 매일이다. 하지만 정말 '어른이 되었다'고 말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도 많다. 서양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미숙함을 "미성년상태"라고 표현했고, 그것은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용기가 없어서 생각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성년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계몽이며, 계몽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용기 있게 지성을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칸트는 서양철학의 역사 안에서 매우 큰 존재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평생 독신이었던 것,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쾨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나 평생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칸트이지만, 그곳은 개방적인 항구도시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상품과 함께 영국의 최첨단 학문의 정보를 항상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선하게 살고" 그 결과 행복하게 되는 "최고선(最高善)"과, 정치적 최고선(最高善)으로써의 세계평화가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을까를 평생 생각했다.

이 타이틀에서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 [영원평화를 위하여] 등, 그의 주요서적을 함께 실어, 쉽게 해석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타이틀이지만, 청소년을 포함하여 칸트를 잘 모르는 성인들 역시 읽을 수 있는 철학 입문서이다. 철학은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 역시 칸트의 인생과 그의 서적으로 칸트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철학이라는 학문과 더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타이틀을 통해 어쩌서 스스로 생각하는 용기가 필요한지, 용기는 무엇인지, 또한 선하게 사는 것, 행복, 세계평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용기를 가진 어른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스스로 생각하다」란?

1장: 항구도시 쾨니히스베르크의 철학자

(대학생 칸트 / 쾨니히스베르크와 칸트의 가정 / 침묵의 10년 등)

2장: 「자유」없이는 선악도 없다. 『순수이성비판』을 읽다

(“가장 선한 것”보다 더 선한 것 /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 / 현상과 물건 그 자체 등)

3장: <선한 삶> 이란 어려운가? 『실천이성비판』을 읽다

(선과 악을 나누는 것 / 도덕법칙, 정언명법, 행복 / 정언명법의 몇 가지 표현 등)

4장: 자연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다? 『판단력비판』을 읽다

(판단하는 것 이란 / 미의 경험 / 「목적론적」관점 등)

5장: 최고선을 지향하는 우리들. 『영원평화를 위하여』를 중심으로 1790년대의 칸트를 읽다.

(인간에게는 악이 자리잡고 있다! / 인간으로써 선한 삶이란? 등)

에필로그 -다시 한번「스스로 생각하다」란?

칸트연보

<저자소개>

미코시마 요시유키

1961 년 나가노 출생. 나가노현 이나키타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생 때 만난 칸트 철학을 배우기 위해 상경했다. 와세다 대학 제 1 문학부 철학전수 후, 와세다 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 박사과정을 만기퇴학하고 1992 년부터 93 년까지 독일연방공화국 본대학으로 유학했다. 현재, 와세다 대학 문학학술원 교수로 전공은 칸트 철학을 중심으로 한 서양 근 현대철학이다.

No.20150603-007

제목: 우주의 시작

저자: 타다 쇼

페이지수: 192

장르: 우주학/천문학

출간일: 2015년 05월 10일



<내용소개>

물질의 기원에 다가가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해설한 강의서

우주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이 문제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아직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 우주가 대 폭발을 일으키며 시작되었다는 빅뱅이론은 우주의 급속한 팽창과정이 있었다는 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대폭발로 점 상태의 우주는 급속도로 팽창해 나갔고 시간과 공간, 에너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한다. 이 주장의 근거로 은하가 계속해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으며, 멀리 떨어진 은하일 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로부터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주에는 많은 수수께끼들이 있다. 솔직히 말해 우주의 수수께끼가 해명이 되던 안되던 간에 우리들의 생활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일상생활과 너무 멀리 떨어진 세계여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안된 학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도움이 안된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인류가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를 생각하면, 우주는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끝까지 밝혀내고 싶은 호기심의 대상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실제로 우주에 관한 책이 많이 팔리고, 우주를 테마로 한 강연도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우주가 호기심의 대상인 것은 틀림 없다.

이 타이틀에서는 소립자물리학자인 작가가 인기가 많은 우주물리학과 그에 비해 인기가 적은 소립자물리학을 연결해 소립자의 세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140억년후를 살고 있는 인류는 가속기라는 장치를 만들어내 우주가 태어난 순간, 100조분의 1초의 순간에까지 다가간다. 듣기만 하면 어려운 단어도 그림과 쉬운 설명을 통해 해설해주고, 우주와 관계 없어 보이는 일상생활도 알고 보면 우주에 관계 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 하던 질문에도 알기 쉽게 대답해 주고 있다.

누구나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워지는 물리학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더 알고 싶은 사람들도 단숨에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우주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물리학의 세계에도 재미를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우주 안의 빛과 온도

(두 개의 입자의 조합으로 모든 원소는 만들어진다 / 처음으로 자연이 수식으로 그려진 순간 / 입자의 에너지 밀도는 어느 정도? =몇도? / 빅뱅이란 우주가 압축된 상태 등)

제 2장: 우주의 시작

(우주의 과거를 재현할 수 있는 장치 / 입자와 반입자가 에너지를 발생 / 우주에 있는 물질은 10억분의 1의 확률로 남겨진 실업자 / BELLE실험이 가져온 노벨 상 / 소립자 인데 왜 각각의 무게가 다른가 / 아인슈타인은 후회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등)

제 3장: 우주와 물질의 Q & A

(우주인은 있을까요? / 우주인은 지구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어떻게 따뜻하게 해주나요? / 번개에 맞으면 인간은 왜 죽을까요? 화상을 입어서 일까요? / 왜 하늘은 파랗까요? / 우주가 시작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등)

<저자소개>

타다 쇼

1970 년 오사카출생. 교토대학 이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교토대학 화학 연구소 기간제 강사를 거쳐 현재는 고에너지 가속기 연구기관, 소립자 원자핵 연구소, 준교수. 저서로 [굉장한 경험 - 고등학생도 알기쉬운 소립자물리의 최전선], [굉장한 우주강의] 등이 있다.

No.20150603-008

제목: 시진핑의 중국

저자: 미야모토 유지

페이지수: 240

장르: 정치

출간일: 2015년 05월 16일



<내용소개>

시진핑을 가장 잘 아는 외교관에 의한 중국론

중국은 모든 것을 공산당이 지도한다. 정식 공산당원이 3명 이상 있는 조직에서는 당의 말단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학교, 외국투자기업, 군대 등 여러 조직에 공산당이 있고, 그 틈에 당 중앙부가 군림하고 있다.

이렇게 공산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중국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격차의 확대, 끊임없이 넓어져가는 부패, 그리고 환경과 식품들의 오염의 심각화 등, 중국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살펴보면 절로 머리가 아파진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35년을 넘는 장기간의 경제의 급속한 발전, 즉 그들의 '대성공'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 거대한 나라가 맹렬한 스피드로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아무도 걸어본 적 없는 길일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시진핑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다. 시진핑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대담하고 정치가의 역량을 느꼈다고 한다. 시진핑은 나라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부패관리를 척결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그렇지만 부패한 관리들의 반격도 만만하지는 않다. 시진핑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많은데, 이 위험을 감수하고 나라의 질서를 잡으려고 비장의 무기를 써가면서 노력하고 있다. 맹렬한 반 부패 전쟁, 전후 질서를 흔드는 외교정세, 급가속하는 경제의 재건. 2012년의 총서기 취임 후, 시진핑은 맹렬한 스피드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인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개혁에 의해 공산당-당지배의 기반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중국공산당의 변혁의 힘에는 거역하기 힘든 것이 있다. 그러나 저자는 중국의 변화에 공산당의 통치능력의 향상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공산당의 통치는 끝난다고 예상하고 있다.

강대화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일방적으로 핵심적 이익을 외치는 여러 국가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권력구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에는 전 중국대사의 경험이 섞인 시점

에서 중국공산당 및, 시진핑 정권의 개요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어, 기본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공산당의 '감추고 싶어하는 체질'이 음모론을 낳는다.

(매우 범위가 넓은 '국가기밀' / 기분은 지금도 지하조직 / 정권유지를 위한 정보개시가 불가결로 / 세계도 '감추고 싶어하는 체질'의 개선을 요구한다 등)

제 2장: 조직은 강대해도 인재부족의 공산당

(공산당을 과소평가한 나의 판단미스 / 7명의 최고지도자 / 헌법의 전문에도 '공산당지도' 등)

제 3장: 현정권을 주박 하는 장쩌민의 '유산'

(다크호스였던 장쩌민 / 모택동시대를 반면교사로 / 온존된 장쩌민의 권력 등)

제 4장: 필요악으로서의 권력집중

(소련공산당의 전례에서 배운 것 / 지침은 [16문자원칙]으로 / 권력장악의 열쇠는 인민해방군에게 있다 등)

제 5장: '호랑이 퇴치'는 어디까지 이어지나

(호랑이도 파리도 함께 퇴치한다! / "호랑이"를 퇴치해서 무엇을 얻는가 / '큰 호랑이'는 아직 퇴치되지 않았다? 등)

제 6장: '모두의 당'이 된 공산당의 모순

(“통치의 정당화”에 대한 장쩌민의 대답-3개의 대표'이론 / 갈기갈기 찢어진 전통적 가치관 등)

제 7장: 시진핑은 중국을 어디로 향하게 하려 하는가

(시진핑과의 회식 / 2020년까지 결과를 낸다 / 갈림길에 선 중국공산당의 통치 등)

제 8장: '군비확장'을 필요이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군사대국이 당연’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인 / 국가안전 위원회 라는 새로운 장치 등)

제 9장: 중국의 미래와 중일 관계의 앞날

(기존 질서의 최대의 수익자 / 베스트 시나리오와 워스트 시나리오의 사이 / 중국에 대한 2중 어프로치 등)

<저자소개>

미야모토 유지

1946 년 출생. 미야모토 아시아 연구소 대표. 교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69 년에 외무성에 들어간다. 주 미얀마대사, 오키나와 담당대사를 거쳐, 주중국대사(2006~10 년)를 지냈고, 2010 년에 퇴관했다.

No.20150603-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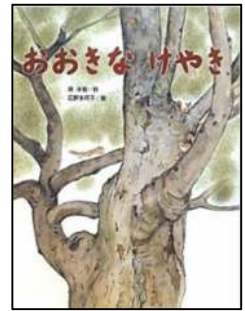
제목: 커다란 느티나무

저자: 하야시 키린 (글) / 히로노 타카코 (그림)

페이지수: 30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1년 01월



<내용소개>

시선이 바뀌면 다른 세계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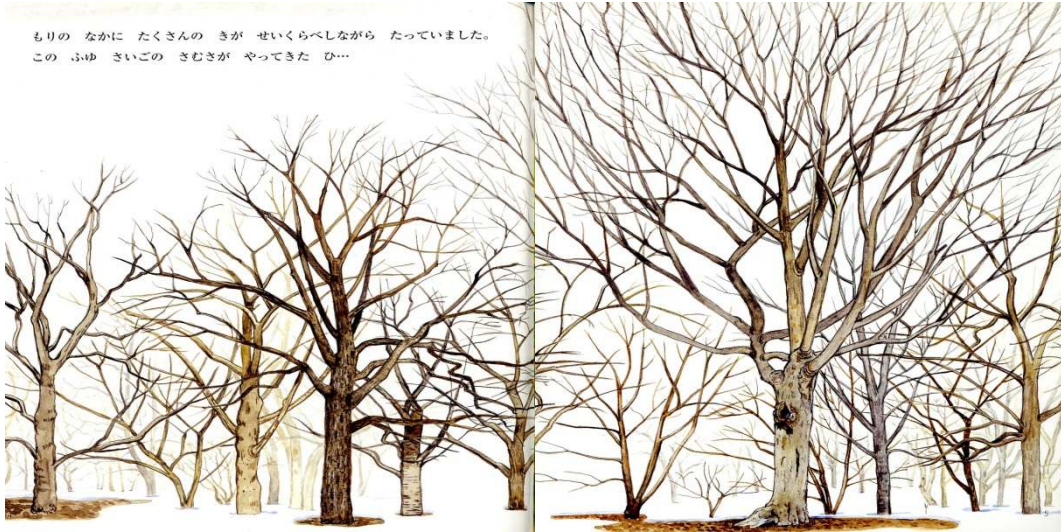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지금 내 눈 앞의 시선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 앞의 것을 보다 보면 높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알아챌 수 없습니다. 또, 하늘을 올려다보면 눈 앞이나 발 밑은 제대로 안보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고 먼 곳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항상 높은 곳만 볼 줄 아는 우리들에게 높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책의 작가는 낮은 곳과 높은 곳의 아름다움, 그 두 가지를 자유로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마음을 어린이들이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숲에서 가장 높고 큰 느티나무가 꺾여,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쓰러진 것에 대해 상심한 큰 느티나무에게 산비둘기와 토끼들이 찾아옵니다. 그 동안 나무를 오르지 못하던 동물들이 매일같이 놀러 오는 곳이 됩니다. 항상 높은 곳만 바라보던 느티나무는 여러 열매와 단풍잎에 둘러 쌓여 보고, 수많은 풀꽃 속에 파묻혀보기도 합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던 느티나무는, 자기가 서있던 낮은 땅도 매우 멋진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고 자유롭게 지금 서 있는 곳을 느끼며 유연한 마음을 가진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봐도 좋을 타이틀입니다.

<본문 이미지>

もりの なかに たくさんの きが せいくらべしながら たっていました。
この ふゆ さいごの さむさが やってきた ひ…



「いつか あなたのように おおきくなって
とおくの けしきを みるのが ほくの ゆめなんだ」
ちいさな からだで せのびを しながら、ぶなの ぼうやが いいました。
「わしが どんなに めを こらして みても、そらを とべる
あの きじばとほど とおくの けしきを みることは できなかった」



「あなたの たくましい えだから
わたしは あおぞらへ とびたつのが すきでした」
きじばとが けやきの そばに おりてきて いいました。



きのほりの にがてな どうぶつたちも
まいにち けやきの まわりに あそびに
くるようになりしました。
けやきの たっていた ところからは
まいにち おひさまの ひかりが さしこんできます。
ひあたりが よくなった まわりの きたちが
とんとん のびていきました。





<저자소개>

하야시 키린

시를 중심으로 그림책 제작, 언어유희, 라디오 등 넓게 활약하고 있다.

히로노 타카코

아이치현 출생. 스페인의 시르쿨로 데 벨라스 아르테스에서 공부, 귀국 후 아동서 세계에 입문했다.

No.20150603-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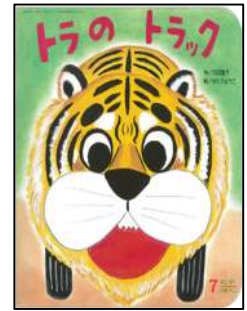
제목: 호랑이 트럭

저자: 칸다 스미코 (글) / 카토 요코 (그림)

페이지수: 28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5년 0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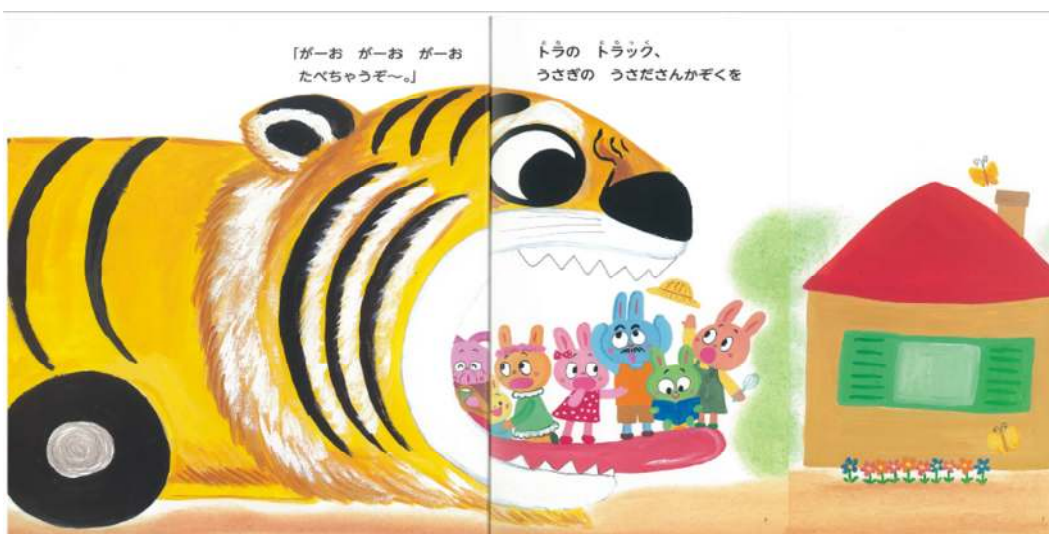
<내용소개>

호랑이 트럭의 여정을 따라가는 [날름날름] 리듬이 기분 좋은 트릭그림책

사람은 겉 모습만으로 판단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스스로는 좋은 마음으로 한 일도 사정을 모르는 주위사람들이 보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습니다. 설명 없이 행하는 일엔 주위 모두가 깜짝 놀라겠죠. 특히 무섭게 생긴 사람이 도와주러 다가와도, 겉모습이 무섭기 때문에 일단 놀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이 책에서는 호랑이 트럭이 동물 친구들을 먹어버립니다. “어흥! 어흥! 먹어버리겠다” 라는 말과 함께 먹음으로써 주위의 동물친구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동물친구들도, 집도, 미끄럼틀도 하늘의 구름까지 호랑이 트럭은 먹어버립니다. “어흥! 어흥! 도착했어” 라고 하는 말과 함께 호랑이 등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튀어나옵니다. 호랑이 트럭은 이삿짐을 옮겨주는 트럭이었던 것입니다. 호랑이가 먹어버리는 장면과 등에서 모두 튀어나오는 장면에서 등을 열 수 있는 트릭이 감춰져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한 권입니다.

<본문이미지>





<저자소개>

칸다 스미코 (글)

사이타마현 출생. 출판사 근무 후 프리랜서로 편집을 하면서 오자와 타다시에게 사사, 동화를 쓰기 시작했다.

카토 요코 (그림)

시와 그림을 합한 어른대상의 [마음의 그림책]으로 그림책의 세계에 들어와, 아동서의 제작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주요작품은 [모두 함께 기차], [비밀 기차], [여길 봐!] 등이 있다.